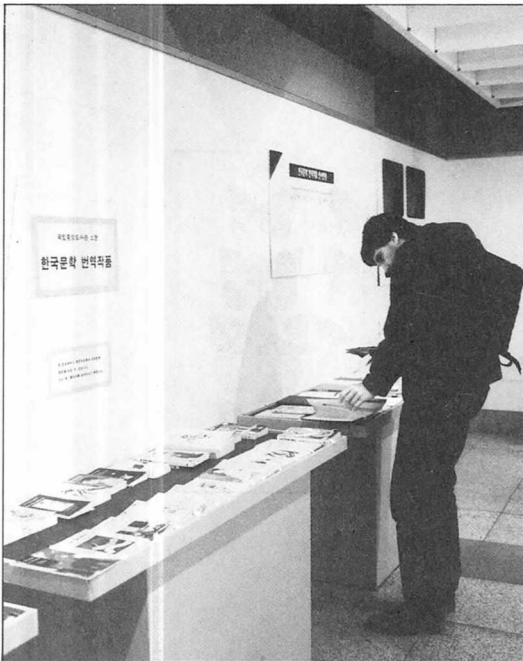


도서관주간 맞아 행사 다채

국립중앙도서관 '기획 전시회'...문화인물 서재필 자료전도 동시개최



도서관주간을 맞아 열고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도서 전시회'(왼쪽)와 문화인물 서재필 관련자료전.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진무)은 제32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한국문학번역작품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전'을 4.12일부터 18일까지 열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학 번역작품 286점과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212점이

전시된 이번 행사에는 작가초청 강연회, 이용자와의 대화 및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치러졌다.

한편 문화체육부 선정 4월의 문화인물인 서재필관련 자료전시회도 4월 한달동안 계속된다.

서울도서전 중 <저자와의 대화> 마련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96 서울 국제도서전 기간 중인 '96년 5월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소회의실에서 <저자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문열, 하일지, 윤대녕, 박상우씨 등 중

견과 신예를 망라한 소설가들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의 저자 김태정씨 등 국내 유명저자 11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독자들에게는 저자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증정하고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도서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ISBN·POS이용 활성화와 출판유통정보화(VAN)구축을 위한 설명회



'ISBN·POS 이용 활성화와 출판유통정보화(VAN)구축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 4월8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려 출판산업현대회에 대한 출판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출판영업인협의회 제9회 춘계체육대회

출판영업인협의회(회장 이운용)는 제9회 춘계체육대회를 오는 5월12일(일요일) 한

강고수부지에서 개최한다. 축구, 족구, 피구, 릴레이, 줄다리기 등 5종목으로 치러지는 이번 체육대회의 참가신청은 출판사, 서점 및 관련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744-7215)

제15회 도남국문학상 발표

도남학회(이사장 이동영)에서 주관하는 제 15회 도남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4월 12일 성균관대 시청각실에서 치러졌다. 수상자는 <선초약장문학연구>를 저술한 숭실대 국문과 조규익교수.

<러시아연구> 원고모집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96년 하반기에 출간되는 러시아 전문 학술지 <러시아연구> 제6권에 실을 원고를 모집한다. 박사과정 대학원생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오는 6월29일까지 원고를 접수하며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의 연구 논문과 A4용지 5매 내외의 서평 또는 연구노트.(880-6014)

지난해 외국잡지 국내판 호황 누려

잡지협회 95년 잡지계 결산...하루평균 1.1권 탄생

95년 한해 창간된 잡지는 4백25종(무가치 포함), 폐간된 잡지는 3백33종으로 하루평균 1.1권의 잡지가 새로 생겨나고 0.9권의 잡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4년에 비해 창간은 5종 늘어나고 폐간은 73종이 줄어든 것. 신규등록은 총 1079종으로 집계되어 신규등록 잡지중 상당수가 창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잡지협회 자료)

창간잡지는 유가치가 220종이었고 간별로는 월간이 244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폐간잡지 중 월간지는 199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간잡지 중 분야별 발행순위는 문화예술, 시사교양, 컴퓨터·통신, 취미·레포츠, 여성 등의 순으로 94년에 비해 문화예술분야가 급상승했으며 컴퓨터, 여성지 등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95년 잡지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멀티미디어 잡지로 기대를 모았던 CD롬 잡지의 부진 현상. 동화상과 음성을 함께 담을 수 있어 인쇄매체의 단점을 보완하는 잡지로 주목을 받았던 CD롬 잡지는 95년 상반기 4종이 창간되었으나 하반기에 3종이 폐간되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CD롬 타이틀을 가동시킬 만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독자가 의외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에 의해 외국잡지의 한국판을 발간하는 라이선스 잡지가 호황을 누린 것도 95년 잡지계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라이선스 잡지인 <행복이 가득한 집> <마리끌레르> <엘르> <메종> 등의 잡지가 인기를 얻자 <에스콰이어> <프리미어> 등의 한국판이 창간되었고 미국의 유명잡지 <보그> <바자> 등도 창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